

# “지역 영화의 가능성 고향 광주서 찾았죠”

광주·전남 유일 영화비평지 '썬1980' 김수진 편집장

지역 영화 종사자 인물·작품 소개 독자들에게 신뢰 받는 플랫폼 지향

광주는 끊임없는 창작의 원천 미래 그린 영화 만들고 싶어

“썬1980' 창간 준비호 당시 첫 인터뷰가 아직도 생생해요. 영화 '신기록'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에서 최고의 단편영화상을 받은 허지은·이경호 감독을 만났는데, 저와 나이가 엇비슷했음에도 어떤 '아우라'가 느껴졌죠. 광주를 주축으로 활동하던 그들을 보며 지역영화의 가능성을 어렵듯이 가능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한 지역영화비평지 '썬1980' 편집장 김수진(35) 씨는 5년 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9년 9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7권의 잡지를 펴냈다. 초창기 편집위원으로 시작한 11호부터 지금까지 편집장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을 광주 토박이로 소개했다. 전대 독문과 졸업 후 서울에서 발행되는 영화잡지 '무비스트' 등에서 영화기자를 하며 견문을 넓혔다.

그러나 정작 꿈을 품고 상경했던 서울은 자신이 그리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대도시의 혼란과 9호선의 번잡함 등은 그에게 다시금 지역으로 '유턴'을 결정하게 했다. 이후 전남대 문화전통대학원에서 문화예술기획을 공부했으며 현재 박사과정 수료 상태다.

그는 돌아온 고향 광주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김 씨가 주축이 돼 펴내는 '썬1980'은 지역에서 영화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인물 및 에피소드 등을 소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광주도 이렇게 영화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전파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지향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잡지는 지역에서 영화비평지로 유일

하다. 김 씨는 “물론 '지역 유일'이라는 표현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수식어가 없는 잡지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썬21’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것처럼) ‘썬1980’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독자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신호(16호)에는 영화계를 달궜던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사건 외에도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예산이 삭감된 상황 속에서 지역영화계의 생존을 논의한 라운드테이블 관련 글 등이 수록됐다. 또 독립 예술영화산업 전망을 분석한 ‘신경쇠약 직전의 극장들’이라는 글도 이목을 끌었다.

지역 영화계를 ‘고사 위기’로 진단한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사실 극장은 분투 중이지만, 그보다 한국의 독립영화 자체가 비슷한 작품을 답습하거나 기시감이 있는 창작물을 선보이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위기”라는 것. 이어 “다양한 지역영화계 출판작들을 심사하다 보면 주제의 식이나 이미지의 활용, 영화의 구조적 측면에서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의 말은 지역영화 전문가가 내놓은 분석이자, 달레당트(에호가)의 ‘애증 섞인 호소’로 들렸다. 그가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디아스포라 영화’이다. 송 라브렌티 감독이 만든 ‘고려사람(1992)’, ‘바들의 땅(1990)’ 등 관련 영화를 분석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고려인 감독들이 초점을 뒀던 역사 속 방외자 문제도 천착하고 있다.

김 씨는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조지오웰의 ‘1984’을, 애정하는 철학자로 니체 등을 꼽았다. 기성 권력의 위계성에 대한 기계적 편입을 거부하고, 해체주의적 철학에 결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이른바 ‘탈중심화’를 다루는 디아스포라적 연구 주제와 궤를 함께 한다.

“하루에 꼭 영화 한 편을 보고, 한 달에 수백 편을 본다”는 그에게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영화 속 캐릭터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건넸다. 김 씨는 “과거의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검은 괴물 ‘가오나시’를 떠올릴 수 있다. 상대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고 자아마저 갖고 있지 않은 가오나시가 마치 세간의 이목이나 평판 등에 집착하던 ‘과거의 나’와 일견 닮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영화 ‘시카고’에 등장하는 주인공 ‘룩시’는 현재의 김수진에 오마주하고 싶다”며 “룩시는 권위적인 남성편력의 그늘 속에서 욕망을 감추고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초절화해 타자를 선망하지 않는 캐릭터”라고 답했다.

영화계에서 입문하며 가오나시처럼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점차 룩시와 같이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김 씨는 올해 편집장직을 내려놓고 단편 독립영화 촬영에 매진할 예정이다. “광주전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린 영화를 촬영해 보고 싶습니다. 미래 광주는 어떤지 그려보는 거죠. 영화를 하는 한 앞으로도 광주는 저에게 끊임없는 창작의 원천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꼭 영화 한 편을 보고, 한 달에 수백 편을 본다”는 그에게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영화 속



김경래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이 지역 균형발전과 성평등 가치 실현 및 확산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 유일 성평등 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담양구원의 발표도 이어진다. 광주시 성인지역예산 실효성 향상조례에 근거해 모니터링, 젠더 거버넌스 기금과 역할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의 좌장은 신한대 장인봉 교수가 맡으며 이명노(광주시의원), 김계옥(광주연구원), 김선희·고명지(송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경래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이 지역 균형발전과 성평등 가치 실현 및 확산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 유일 성평등 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아리랑 정신’으로 지나온 굴곡의 역사

김상술 작가 ‘장성 아리랑 바람’ 발간...e-book 완결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근 현대사 집결의 역사를 대변한다. 참혹한 역사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

우리 민족은 고통과 상흔의 시기에는 늘 아리랑을 불렀다. 아니 ‘아리랑 정신’으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다.

아리랑 정신을 모티브로 근현대사 굴곡의 역사를 장편소설로 풀어낸 작가가 있다.

오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를 역임한 김상술 작가가 최근 ‘장성 아리랑 바람’ (그린누리)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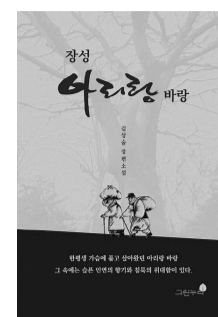
특히 작품은 전남 장성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민초들의 삶을 담고 있다.

이번 책은 e-book으로만 출간했던 ‘뫼다 폰 아리랑’의 궁금증을 풀어낸 완결판이다.

김 작가는 “지난 한세기를 되돌아보면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에 맞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나 민주화, 세계화 과정에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여 당당히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피할 수 없었던 시대적 아픔을 가슴에 안고 굽어치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은 고난의 시기에 아리랑을 부르며 어려움을 견뎌냈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희망이자 주춧돌이었다.

김 작가는 아리랑을 일컬어 “은근과 끈기, 사랑과 열정, 흥과 한, 용서와 포용, 꿈과 끼, 정의와 극



복의 유전자가 담긴 혼이요 뿌리”라고 부연했다.

소설은 대길과 순애, 아야코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제시대 대길은 아야코라는 일본 여자와 첫사랑의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강제노역으로 일본에 끌려가고 해방과 함께 이별을 고향 수박

에 없다. 대길의 내면에는 상심과 상처가 자리잡게 된다. 이후 대길은 6·25전쟁으로 남모를 아픔을 지닌 순애를 만나 결혼을 한다.

소설은 세 인물을 토대로 굴곡의 삶과 엇갈린 운명, 시련고난한 인생의 여정을 그려낸다. 작가는 그 삶과 시간 속에 면면히 흐르는 ‘아리랑 정신’을 주목한다.

김 작가는 “굽어치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던 주인공들의 삶에 녹아 있는 아리랑 정신을 재현하여 거기서 우리나라는 아리랑 향기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희망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흘러간 과거를 디딤돌 삼아 다시 과거가 될 현재를 살아가며 곧 현재로 다가올 미래를 꿈꾸게 된다”고 했다.

책 편집위원들은 편집후기에서 “작가는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며 복잡한 삶의 방정식을 풀어낸 주인공들의 역사 같은 삶의 원동력을 아리랑 정신에서 찾고 있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오월문학제 등 내실있게 추진·소통 강화”

광주전남작가회의 정기총회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작가회의) 2024년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오후 3시 민들레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인, 소설가 등 100여 명의 문인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목포, 순천, 여수 지방 회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단 최고령 작가인 이명환 소설가가 불현듯 몸을 이끌고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광고 문예부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등단한 김세용 시인이 서울에서 참석해 신입회원으로 입회해 주목을 받았다. 신입 광주민예총 정전일 이사장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양주 회장은 “올해는 회원과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가회의를 운영해나 갈 계획”이라며 “문인들이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창작활동 외에도 작가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5월 문학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젊은 청년작가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창작활동을 펼쳐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광주전남작가회의는 27일 민들레소극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생애 첫 책을 발간한 회원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논의할 계획”이라며 “목포, 순천, 여수 각 지방 사업이 충실히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 이어 신입회원 소개, 책 발간 기념패 증정도 진행됐다. ‘작가’ 편집위원장인 김호균 시인이 32호, 33호에 대한 출판 보고를 했으며, 이어 전임 회장 이지담 시인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성평등 실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모색

광주여성재단, 다음달 2일 정책 포럼...은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과 한국거버넌스 학회가 2월 2일 오후 2시 송원대 분부에서 제26차 광주여성가족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성평등 실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모색’.

포럼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의원의 ‘지방시대의 비전과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재단 박태순 연구위원이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획일적인 현행 돌봄정책의 중앙화 등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마을 중심으로 ‘은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거버넌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정누리 전

담양구원의 발표도 이어진다. 광주시 성인지역예산 실효성 향상조례에 근거해 모니터링, 젠더 거버넌스 기금과 역할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의 좌장은 신한대 장인봉 교수가 맡으며 이명노(광주시의원), 김계옥(광주연구원), 김선희·고명지(송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경래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이 지역 균형발전과 성평등 가치 실현 및 확산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 유일 성평등 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